

전북-캐나다, 산업 혁신 협력 확대

전북TP, 도내 핵심 R&D 기관 통합 연구부스·에너지산업&AI산업 세션 구성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 Le Centre Sheraton Montreal Hotel에서 열리는 '2025 CKC'에 참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 및 미래산업과 연계된 R&D 분야의 도내 및 캐나다 우수 연구기관 간 실질적인 연구협력을 통한 글로벌 R&D 협력 기반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전북도내 10여 개의 핵심 R&D 연구기관이 '전북자치도 글로벌 R&D 협력 추진단'으로 함께 참여한다.

전북자치도 글로벌 R&D 협력 추진단은 금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전북



R&D 공동 연구부스 구성·운영하여 캐나다의 AI, 우주항공 등 혁신산업 육성 관련 트렌드 정보 수집 및 전북 자치도 및 캐나다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공동연구개발(R&D)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외 연구자/연구기관 및 전북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활동을 통한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글로벌 R&D 협력 추진

단은 이번 CKC의 성공적인 참여를 위해 인공지능(AI) 응용 및 항공우주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건이 넘는 구체적인 공동 R&D 협력 과제를 사전에 준비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북TP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및 한국기계연구원(KIMM)에서 공동 운영하는 '캐나다-한국 간 수소 기술 및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 세션 내 발표를 진행했다. 전북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완주·부안 수소생산기지, 현대차 수소상용차 생산, 수소저장·운송용 고압용기 산업 등을 중심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만대 수소차·50개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북TP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 연구개발 현황 및 비전이라는 주제로

전북 수소·에너지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과 미래비전을 홍보해왔다.

또한 전북TP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캠틍종합기술원 등 전북자치도의 AI 응용분야의 R&D 핵심 연구기관과 캐나다의 대표 인공지능(AI) 연구기관인 IVADO(Institute for Data Valorization)와 함께 공동 세션을 구성하고 운영했다. 금번 세션을 통해 양국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 'AI 기반 자율제조, 스마트농업, 건설·해양 산업 등 산업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융합기술 개발과 한·캐나다 공동 연구협력 방안'을 주제로 집중 논의했다.

(재)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자산업인 대표 R&D 연구기관의 주요 역할을 세계 최대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알릴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달 31일 군산시 이웃사랑복지센터(이사장 고현욱)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이동지원 차량·동행 인력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현호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군산시 이웃사랑복지센터(이사장 고현욱)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4월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웃사랑복지센터는 소독취약계층 중장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는 기본이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발걸음, 행복한 외출 다함께 차차차」 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이웃사랑복지센터는 소독중계가 필요한 중장년 10명을 선발하고 11월까지 병원, 관공서, 은행, 문화시설, 전통시장 등 이동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50여명에게 차량 및 동행 인력을 지원해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할 계획이다.

전달식에는 이웃사랑복지센터 고현욱 이사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현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전산부 부부장, 이해운 수송동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현호 노조위원장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거나 택시 등 대안교통 수단에 비용부담이 큰 어르신들이 의료·복지시설 이용, 문화·여가활동 향유에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기안전공사,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최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 공급과 전기설비 안전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추진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정치교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배계섭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의지를 다졌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미 경주, 제주, 인천에서 개최된 고위관리회의(SOM) 주요 회의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 특히 경주 지역 정상 숙소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사장 만찬장, 숙소 등 APEC 관련 주요 시설 전반에 대해 정밀한 전기설비 점검과 안전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가축 고온 피해 예방·축산 분야 안전관리 만전

권재한 농진청장, 경기도 한우농가 방문... 폭염 대응 신기술 적용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고온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1일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한우 농가를 방문해 폭염 대응 시범 사업인 '우사 에어 제트팬 및 축벽배기팬 설치' 현장 적용 상황과 효과를 점검하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장치는 축사 상층부에 모인 더운 공기를 강력하게 밀어내고, 축벽에 추가 설치된 배기팬을 통해 내부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여름철 가동하면, 우사 온도가 1.9도(℃), 습



도는 4% 정도 떨어지고, 암모니아 농도 역시 33ppm 낮아져 축사 내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고온기 일당 증체량이 증가(0.87→0.90kg/두)하는 등 축산농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 60농가를 우사 에어제트팬 및 축벽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해 현재 40개 농가에 보급했다. 8월 말까지 나머지 11개 농가에도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권 청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폭염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가축 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매일 지역별 가축(한우, 젖소, 돼지, 닭 등) 더위지수(THI)를 실시간 제공받아 여름철 가축 관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8개 시군 60농가를 우사 에어제트팬 및 축벽배기팬 설치 시범사업 농가로 선정해 현재 40개 농가에 보급했다. 8월 말까지 나머지 11개 농가에도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권 청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폭염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가축 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매일 지역별 가축(한우, 젖소, 돼지, 닭 등) 더위지수(THI)를 실시간 제공받아 여름철 가축 관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사과 수급 안정 총력... 수확기까지 현장 기술 지도 강화

농촌진흥청은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주산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상담(컨설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 상담은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사과 수급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농가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원에특작과화원은 사과연구센터 전문 인력 10명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꾸려 산불·우박·저온 피해 지역을

포함한 주요 사과 생산지 50개 시군에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탄저병 등 병해충 대응 요령을 지도하고 있다.

여름철 사과 농가에서는 물 주기(관수)와 함께 집중호우 시기 물 빠짐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고온이 계속될 때 나무에 수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열매 생장이 나빠지고 햇볕 데임 피해가 증가하는 등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수분 상태를 점검해 아침이나 해가 진 뒤 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반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과수원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토양 내 산소 부족으로 뿌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생육이 멈추거나 열매가 떨어지는 등 피해가 점차 심해질 수 있다. 비가 이어질 때는 탄저병 등 병 발생을 면밀하게 살펴 병든 열매를 따내고, 유해성분(계통)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뿌린다.

/오상근 기자

디지털디자인목업품평장 구축 의견 수렴

전북디자인센터, 활용의사 확인 위한 설문조사 추진

(재)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종길)는 4~15일, 지역 산업디자인 역량제고를 위해 기획 중인 '디지털디자인목업 품평장 구축 사업'에 대한 적정기술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산업체의 활용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목업(Mock-up)이란 제조가반의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과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의 크기 또는 일정비율로 축소 제작된 모형을 의미하며, 주로 프로토타입의 이해관계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함께 모여 디자인을 평가하는 품평회에 활용된다.

'디지털디자인목업 품평장'이란 실제 목업을 만들던 기존 방식을 대체하여 대형스크린 또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과 같은 몰입감 있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디자인

을 평가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디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품평회는 디자인 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심미성과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자원의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디자인 품평장을 구축해 지역 기업들에게 개방하게 되면 지역 제조업의 디자인 혁신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2019년 남양연구소에 150여억원을 투자해 최대 20명이 동시평가 가능한 VR 품평장을 구축하여 현장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을 통해 신차개발 기간의 20%, 개발비용의 15%를 감축해왔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